

文 “韓 평화구상 진전… 핵 없는 한반도위해 대화 유지”

오늘로서 ‘韓 완전한 비핵화’ 연설

하랄5세 국왕, 소냐 왕비 등 참석
“한반도 평화 자리잡을 때 까지
노르웨이, 지혜·힘 모아주길”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오슬로 대학교 법과대학 대강당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비전’ 관련 연설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의 오늘 연설에는 하랄5세 국왕과 소냐 왕비, 씨라이데 외교장관 등 노르웨이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오슬로 대학 학생들과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600석 규모의 현장을 가득 메웠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판으로 작년 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전(현지시간) 노르웨이 왕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하랄5세 국왕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동계올림픽 후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정상회담을 거쳤다. (이를 통해)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남북관계-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를 진전시켜 나가도록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대립과 갈등이 끝나고, 평화와 공존의 신질서로 나아가는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구축을 위해 ‘신한반도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노르웨이와 대한민국은 평화의 동반자다. 한반도 평화가 단단히 자리 잡을 때 까지 노르웨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결렬된 한반도 비핵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마침 오늘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이라며 “1년 전 오늘,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맞잡았고, 한반도 비핵화·새로운 북미관계·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원칙에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 그 합의는 진행 중”이라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대화가 교착상태를 보이지만,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가

1950년 한국전쟁 때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데 대대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양국은 전우”라면서 “노르웨이 출신 트리그베 리 초대 유엔(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강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파병을 국가세회에 강력하게 호소해 관찰시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르웨이는 한반도에 의료지원단 623명을 파견했고 9만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며 “대한민국은 노르웨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 수락 배경은 이렇다. 노르웨이 정부는 ‘인도주의 대화를 위한 센터’와 공동주최하는 오슬로포럼의 올해 기조연설자로 문대통령을 초청했고, 우리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의 초청을 수락하며 성사됐다.

/우승준 기자 dn111@metroseoul.co.kr

헝가리 사고, 돼지열병, 대북 식량지원 당정, 외교·통일분야 현안업무 논의

외교부 “실종자 수색·유족지원 최선”
통일부 “인도적 원칙… 北 식량지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와 헝가리 유람선 사고 국가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대북 식량지원 등 외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수혁 의원을 외교·안보 분야 당대표 특별보좌관에 임명하고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외교부·통일부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

먼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협의에서 “헝가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외교부는 남은 실종자 수색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헝가리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헝가리 참사 관련 당대표 특보를 맡은 이 의원을 필두로 사고수습에 대한 국가지원과 피해자 지원 등을 구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SF와 관련해선 당내 예방대책특별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원회 부위원장에 설훈·김현권·서삼석·오영훈·윤준호 의원을 임명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달 7일 특위 위원장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완주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해선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업부보고

에서 “정부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북한의) 어려운 식량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하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에서 관련 국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대규모점포 입지·영업규제 개정안 설명

산업부,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통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 점포의 입지규제 강화와 영업규제 확대 등 유통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전국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는 각 지자체 공무원 21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외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도 입점 제한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재계에서는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7일 입법 예고한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개정안은 상권영향 평가서의 작성 방법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연승 단국대학교 수가 ‘국내외 유통환경 변화와 오프라인 유통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석대성 기자

우수기술연구센터기업 올 청년 2100명 채용

우수기술연구센터(ATC) 기업이 올해 2100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ATC 기업 1만명 청년채용 다짐 선언식’에서 183개 ATC 수행기업이 올해 2천 100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ATC 사업은 기술 역량이 높은 기업 부설 연구소를 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18곳을 지정했다. 지난해는 목표 인원인 2045명을 39.2% 초과한 2847명을 신규 채용했다.

/석대성 기자

까지 왔는데 오히려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을 보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한국당이 결단할 마지막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과 대한민국 경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속절없이 (계류) 49일째를 맞고 있다”며 “50일 넘기지 않고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비판에도 한국당은 “추경은 선거운동용”이라고 평가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경제 악화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며 경제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상태다.

/석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 녹색·지속가능 외평채 발행 착수

기획재정부는 12일 외화표시 외국화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발행 예정 채권은 미국 달러화 표시 만기 5년짜리 녹색 및 지속가능(Green and Sustainability) 채권과 만기 10년짜리 일반 채권이다.

주간사는 씨티, 크레디아그리콜(CA-CIB), 홍콩상하이은행(HSBC), JP모건 등 4곳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에도 외평채를 발행했지만, 녹색 및 지속가능 채권을 발행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대성 기자

녹색 및 지속가능 채권은 환경과 사회적 지속가능 분야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을 뜻한다.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녹색 및 지속가능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 같은 채권만 살 수 있는 투자가 있는 만큼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금리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녹색·지속가능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 같은 채권만 살 수 있는 투자가 있는 만큼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금리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대성 기자